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군산시, 재난안전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5000여명 자원봉사자로 구성

군산시는 2021 군산시재난안전 네트워크 발대식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재난안전네트워크는 16개 봉사단체 5천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재해발생 시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 재난복구에 특화된 봉사자들



이뤄져 있다

발대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으며 선서문 낭독과 위촉장 수여 등 자원봉사네트워크를 건

고히 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재난발생 시 복구과정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제4기 재난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해, 소방안전교육을 포함한 라이프해킹워크숍, 생존배낭워크숍, 재난물품워크숍 등 6개 과정으로 구성된 안전교육을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상황은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재난안전네트워크를 든든히 구축해 재난 시 자원봉사 대응시스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는 (주)세아베스틸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10kg) 1,000포(2,7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기업 정신으로

군산 세아베스틸, 추석명절 이웃사랑 백미 9년째 기탁

군산시는 (주)세아베스틸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10kg) 1,000포(2,7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기업 정신으로 매월 임직원 희망 모금과 급여 할전 모금 등 일직일의 후원금을 마련해 지난 2012년부터 희망 나눔 지역복지 실현하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에 지금까지 총 18억 상당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서현승 노조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세대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상호 지임본부장은 “앞으로도 세아베스틸은 노사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한밭대, 학생상담센터 발전 간담회 개최

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14일 군산대학교에서 한밭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상호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교 간 상호 협력적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업무간담회는 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국내대학에서 처음 도입한 챗봇(카톡상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국면 이후 국립대학 간 대학생들의 진로 및 심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양 기관 센터장 및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주요 업무에 대한 상호 의견 교류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또한, 양 센터는 향후 지속적인 연락 체계망 구축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지속해 갈 것에 합의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대병원, 방역강화 속 신규 간호사 채용 집중

원광대학교병원은 신규 간호사 채용을 위한 관련 절차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원광대병원은 올해 300여명의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면접 과정을 진행했다.

원광대병원은 응시자들의 안전한 시험 환경 제공을 위해 면접장 분리, 시험 관계자 출입 통제, 시간 조정을 통한 대기 인력 최소화 등을 통해 면접을 진행했다.

원광대병원은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신규 간호사 채용을 통해 코로나19의 전파 차단과 보편적 건강복지가 실현될 때까지 환자의 안전한 치료와 전복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번 추석 온라인 성묘 비대면 안부 인사 전하기’ 호소

강임준 군산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브리핑

강임준 군산시장이 온라인 성묘와 비대면으로 안부인사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것을 호소했다.

14일 강 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하길 기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석 역시 가족, 친지들이 한데 모여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위협을 받는 영세 자영업



강임준 군산시장이 온라인 성묘와 비대면으로 안부인사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것을 호소했다.

자와 소상공인, 활동제약으로 설 무대가 사라진 지역 예술인과 실직 등의

고용 위기를 겪는 이웃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병후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전과는 다른 상황을 감수하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현재 군산은 백신 예방접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나서는 추석 전 70%를 돌파하고 2차는 5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신 접종에 협조한 시민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비록 몸은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농협, 농협중앙회 유통혁신대상 수상

익산농협은 농협중앙회 주관한 유통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익산농협은 농자재 계통공급, 효율적 농자재 공급체계 구축 등에 앞장서 유통혁신대상을 받았다.

유통혁신대상은 익산농협을 비롯한 전국 5개 농협이 선정됐다.

익산농협은 소형농기계 보조사업과 시설농자재 지원사업에 앞장서 왔다.

익산농협은 지난 2015년 이후 국·

도·시비와 자부담금 등 총 74억원을 투입해 미곡종합처리장을 현대화하며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

또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떡방앗간을 마련해 7~8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등 경제 사업에 주력해 오고 있다.

익산농협은 지난해 자산 규모 1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익산과 대구, 부산, 충남, 제주 등에서 금융사업을 전개해 지난 2013년 400억원이던 매출금이 현재

8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예수금은 9500억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디지털뱅킹 사업에 주력해 6월말 기준 전국 프로모션 1위를 달성했으며 전북지역 디지털금융 20%를 유치하기도 했다.

김병욱 조합장은 “유통혁신상 수상, 자산 1조원 돌파 같은 좋은 소식이 꾸준히 들릴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협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지역 소식통

군산시민 생활수기 공모 접수

군산시는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군산시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착 사례로 활용하고자 군산시민 생활수기 공모전 ‘군산에 살기 좋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접수하며, 군산에 살며 느낀 점이나 사연을 주제로 한 생활수기를 이메일 우편(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을 통해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군산 전입 ▲우리 가족의 이야기 ▲친구 또는 이웃과의 이야기 ▲군산시 특별 서비스 이용후기(군산시 영유아 상해보험 또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이다.

‘당신과 군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부제처럼 자유로운 산문형식으로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아려한 글(HWP)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추석명절 군경 합동모지’ 제초작업 실시

군산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운동 소재 군경합동모지 제초작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벌초 기간에는 강우가 겹치면서 작업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추석 연휴기간 참배를 못해 아쉬워 할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정성껏 벌초를 맡기 마무리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18일 ~ 22일) 군경 합동 모지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보훈가족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추석명절 연휴 기간 군경합동모지 운영 중단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경합동모지는 지난 1960년 설치돼 순국선열, 전상군경, 6.25참전 유공자 등 900기가 안장되어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